명조체와 원고지 기원 '대장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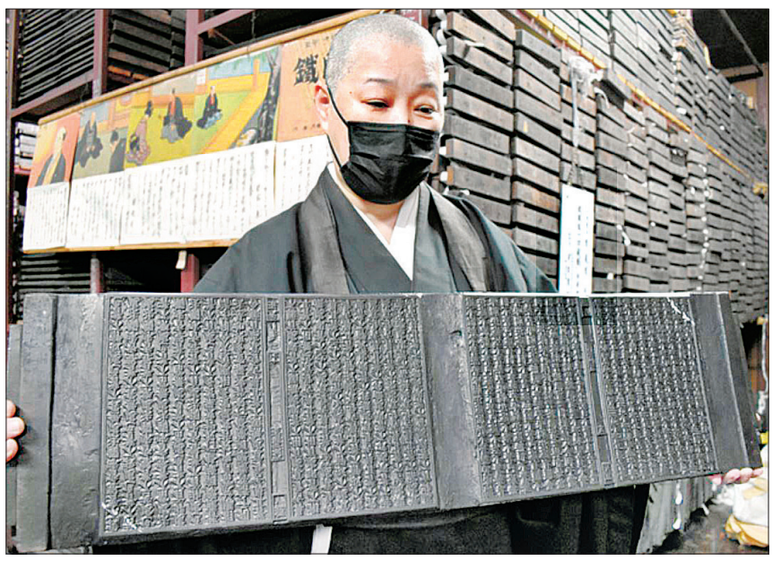
日'황벽판 대장경' 재주목

명나라의 글씨 '명조체' 양각
400자 원고지 토대로 추정돼
경판보존 모금프로젝트 진행

박영빈 객원기자

서적이나 문서 등에 주로 쓰이는 '명조체' 와 글쓰기의 기본으로 이용되는 원고지의 기원은 일본의 사찰에 있었다. 17세기 일본에서 개판된 '황벽판 대장경' 과 경판을 보존하기 위한 '테츠겐 프로젝트' 에 대해, 지난 11월 19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이 특별 보도했다.

교토의 호조인(寶蔵院)에 소장된 〈황벽판 대장경〉은 일본에서는 세 번째로 개판된 목판대장경이다. 1669년 일본의 테츠겐 도코(鐵眼道光)선사의 발원으로 시작된 개판불사는 테츠겐 선사의 스승이었던 은원 융기(隱元隆琦)선사가 명에서 가져온 7334권의 〈가흥대장경〉을 저본으로 판각됐다. 17년간 이어진 개판불사는 테츠겐 선사 개인의 원력으로 모두 진행됐다. 모든 불사비용을 테츠겐 선사가 직접 일본 전국을 돌며 모았다고 전한다. 당시의 화폐로 6만 냥, 현재 가치로 18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호조인의 수장고에서 경판을 들어보이는 스님. 사진출처=아사히신문

테츠겐 선사는 개판불사 중에도 가장 중요한 중생구제를 잊지 않았다. 호조인의 주지 모리이 코도스님은 "개판불사 중, 사찰이 있는 지역에 2차례 홍수와 기근이 들었다. 테츠겐 선사는 당시 불사금을 풀어 어려운 대중들을 구호했다. 2번을 멀리 돌아 완성된 소중한 대장경" 이라고 말했다.

〈황벽판 대장경〉은 개판된 이래 수차례 인쇄되고 일본 전국에 보급되면서 일본불교의 교학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완성된 경판은 너비82cm, 폭 26cm로 모두 산벚나무로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양면에 책의 한 면이 새겨지는 경판들과 달리, 한 편에 2면씩 총 4면의 내용이 새겨져 있어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다. 경판들의 상태는 대부분 양호하여 지금도 전문장인들의 손에 의해 인쇄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경판에 쓰인 글씨체가 타 지역의 경판이나 일반 서적의 기본자체로 널리 이용되면서 근대에 이르러서는 활자로까지 만들어졌다. 〈황벽판 대장경〉의 글씨체는 저본인은 가흥대장경의 글씨체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명나라 때의 글씨체라는 뜻인 '명조체' 로 불렸다. 이것이 현대 명조체의 기원이다. 또 각 면은 20자씩 10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역시 명조체와 함께 400자 원고지의 기원이 된 것으로 전한다.

호조인은 경판의 보존을 위해 1961년 철근 콘크리트로 수장고를 신축하고 경판을 이운했으나, 현재 시설의 노후화와 온습도 조절 등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경판들을 서로 겹쳐 쌓아 보관하는 현행 보관법으로는 경판 자체의 뒤틀림과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존하는 경판은 6만 장 이상이며,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4만 8275장이다.

이에 호조인 측은 2020년부터 경판의 보존을 위한 모금활동인 '테츠겐 프로젝트' 를 시작했다. 호조인은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곤 하지만, 먼 미래에 이 대장경들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아이들 공부방으로 변신한 사찰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

불자 감소 따라 유휴 공간제공
교육 공간 활용에 만족도 상승
아동·청소년포교 자연히 연결

불교인구의 감소에 따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일본 불교, 법회와 기도시간을 제외하곤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 법당과 전각들을 주민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개방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일본의 '교토신문' 은 열린공간으로 제공되는 사찰들에 대해 보도했다.

올해 4월 사찰의 본당을 공부방으로 개방한 정토진종 메이카쿠지(明覺寺)의 주지 하시라모토 쥰쿄 스님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신도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에 있어서 절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찰을 개방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쥰쿄 스님은 10여 년전 주지로 취임하면서부터 사찰을 개방할 생각을 해왔다고 전했다. 스님은 "옛날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육시설인 '테라코야(寺子屋)' 가 각 사찰마다 있었다. 사찰은 학습과 놀이의 장소"라며 사찰을 공부방으로 개방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메이카쿠지는 한 학원 프랜차이즈의 공부방으로 등록되어 매일같이 아이들이 드나들며 활기가 넘치고 있다. 쥰쿄 스님은 "도반스님들이나, 타 종단의 스님들로부터도 '어떻게 열 수 있는가' 라는 문의가 들어오는 등, 교계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사찰의 본당에 모여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 사진출처=교토신문

메이카쿠지와 함께 같은 학원의 공부방으로 본당을 개방한 교토의 임제종 사찰인 쥬쇼인(壽聖院)의 주지 니시다 에이테츠 스님도 "가벼운 마음으로 절에 올 수 없다면, 정말 절이 필요할 때 문을 두드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아이들이 절에 드나드는 것으로, 부모나 보호자인 어른들도 편하게 절에 올 수 있게 된다"며 사찰을 개방한 이유를 전했다. 사찰과 함께 공부방을 운영 중인 학원 측은 "조용하고 청결한 사찰의 환경이 학생들의 집중도 향상에도 뛰어나다. 또 사람이 모이는 사찰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문화교육적인 면에도 도움이 된다"며 장점을 설명했다.

현재 교토 시내에서는 공부방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육이나 공용사무실로 사찰을 개방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찰을 개방한 한 스님은 "공간대여료나 사용료 등으로 사찰의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의 손길을 타면서 사찰의 유지에도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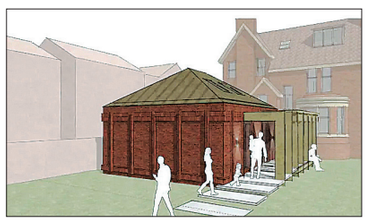
이 흐름에 맞춰 종단 차원에서 종단의 시설을 개방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정토진종 오타니(大谷)파는 교토시내에 종단이 소유한 회관을 공부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종단에 소속된 타 지역의 사찰이나 회관을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오타니파 측은 "어린이 법회 등,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단의 문도에 한정되고 있었다. 이번 기회로 더 많은 대중들에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박영빈 객원기자

방공호, 불교 명상 공간으로 탈바꿈

영국 레딩 자치구, 카담파 명상센터 인근 방공호 개발 승인

영국 남동부 레딩(Reading) 지역에 위치한 한 방공호가 불교 명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영국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구의회는 현재 카담파 명상센터 인근에 위치한 방공소를 명상실로 사용 변경하고, 인근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의 '카담파 명상센터 운영 계획' 을 승인했다. 기존 명상실은 강사들을 위한 사무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된다.


사진출처=willhealthy.com

카담파 명상센터는 이 지역에 본부를 둔 서양 불교 명상의 중심지로 꼽힌다. 해당 매체는 "지난 15년 간 지역민들에게 휴식과 평화를 선사하며 심리적 피난처 역할을 했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주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발 계획의 주요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명상 수업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한편, 최첨단 시설을 도입하기 위함이다. 약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화장실, 케이터링, 정원 공간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카담파 명상센터 관계자들은 "이번 개발로써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 약자들을 위한 독서 커뮤니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개발 계획도 중요하지만 인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거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예민하고 신중하게 설계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자치구의회 도시계획부서는 같은 날 카버샴, 타일허스트, 콜리 지역에 대해 주거지역 계획 변경을 추가로 승인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인도 춤추는 스님들 SNS에서 화제

비구 스님들 넷플릭스 영화 수록곡 맞춰 춤추는 영상 공개


사진출처=monks_himalayan 인스타그램

최근 방영된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로 인해 국내에서 '스트레트 댄스'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인도 승려들이 단체로 춤을 추는 영상이 SNS에 유포돼 큰 화제다.

인도 매체 리퍼블릭월드(republic world)는 지난 11월 22일(현지시간) "연일 인터넷에는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여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자신의 춤과 노래 등 다양한 끼를 분출한다"며 "그중에서도 최근 인도 영화 수르야반쉬(Sooryavanshi, 2021)의 수록곡 에일라 르 에일라(Aila Re Aila)에 맞춰 춤을 춘 승려들의 영상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르야반쉬는 인도 영화 '모범경찰 싱감' 으로 유명한 로힛 쉐티 감독의 액션대작으로, '넷플릭스' 를 통해 개봉했다.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사용자 'Monks_himalayan' 이 자신의 계정에 게재하며 대중에 알려졌다. 영상에서 승려들은 에일라 르 에일라 노래에 맞춰 군무를 춘다. 전문 댄서들 못지않은 리듬감과 쇼맨십이 대중의 눈을 사로잡아 1만 5천 명 가량이 '좋아요' 를 눌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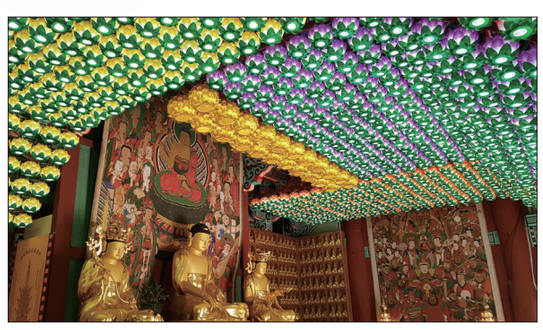
네티즌들은 댓글에서 "에너지틱한 댄스다" "스님들이지만 너무 대단하다" "내가 아는 스님들 중 가장 춤을 잘 춘다"며 찬사를 보냈다.

박정현 객원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